

蘆根과 茅根에 대한 文獻考察

조남경 · 김종덕*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과대학원, *사당한의원

Abstract

Literature Investigation of *Phragmites communis* Trin.[蘆根] and *Imperata cylindrica* var. *koenigii*[茅根]

Cho Nam-Kyung, Kim Jong-Dug*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 *Sa-dang Korean Medical Clinic

1. Objective

The object of this thesis is to find the basis of Constitution assignment of Nogeun(蘆根, *Phragmites communis* Trin.) used to the medication for Taeyangin. Also, it is to recognize what kind of Constitution of Mogeun(茅根, *Imperata cylindrica* var. *koenigii*) is needed to be assigned to.

2. Methods

『Dongyi Soose Bowon』 『SinchukBon』, 『ChobonKwun』, other related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SCM) books, herbal medicine books such as 『Boncho Kangmok』, and etc. were compared and researched.

3. Results & Conclusions

- 1) Nogeun(蘆根) lowers Qi and harmonizes the body. Because of the effect of lowering soar-Qi(氣), it used to treat the symptoms of Taeyangin's vomiting[噎膈反胃, Stomach reflux due to dysphagia-occlusion]. Also Yuksoo Nogeun[逆水蘆根, Reed growing near the river in low stream] is the basis of considering inhale-gathering Qi effect as a major indication of Nogeun.
- 2) The theory of classifying White Mogeun as a Tae-eumin Medicinal is based on the effect of Radiating while classifying White Mogeun as a Taeyangin Medicinal is based on the effect of treating stomach reflux[反胃]. But both basis are not conclusive and thus requires further study.
- 3) In 『Sasang Geumge Bibang』, the first text ever to write only about separate medicinals and Classified Foods [食物類] of each constitution, there were examples of Nogeun and Mogeun's usage based on other pre-existing medical texts.
- 4) Because White Mogeun is classified as Tae-yangin medication in 『Dongmu Yugo』, but classified as a Tae-eumin's medication in 『Dongyi Soose Bowon』 『ChobonKwun』 and 『Sasang Geumge Bibang』, there remains a controversy.

Key Words : Nogeun(蘆根, *Phragmites communis* Trin.), Mogeun(茅根, *Imperata cylindrica* var. *koenigii*), Reed, 『Sasang Geumge Bibang(四象金匱秘方)』

I. 緒 論

太陽人藥物로 사용되는 蘆根(갈대 뿌리)은 『東醫壽世保元 草本卷』에는 보이지 않으나 『甲午本』에 수록되어 太陽人의 表裏病에 모두 사용되고 있다.¹⁾ 蘆根은 太陽人의 두 가지 처방인 五加皮壯脊湯과 獼猴藤植腸湯에 들어있으며, 單方으로도 사용되었던 약물이다. 하지만 蘆根이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太陽人藥物로 배속되었는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太陽人處方의 정신을 이해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

또한 蘆根과 같은 비(화분)科인 茅根(띠 뿌리)은²⁾ 『東醫壽世保元 草本卷』에서는 太陰人藥으로 배속되어 있고, 『甲午本』 『辛丑本』에서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東武 사후에 편찬된 『東武遺稿』에서 太陽人藥(肝藥)으로 배속되었으며 『四象金匱秘方』에서는 太陰人藥으로 되어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蘆根과 茅根에 대한 연구는 蘆根과 茅根 각각에 대한 실험연구 위주이며, 문헌연구를 통한 四象醫學的 考察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蘆根과 茅根에 대한 文獻考察을 통하여 두 약물의 체질배속근거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Table 1. 蘆, 荻의 성장에 따른 명칭변화

성장상태 \ 종류	갈대[蘆]	물억새[荻]
어린 싹	가(莖)	담(莢)
덜 자란 것	노(蘆)	완(藪)
다 자란 것	위(葦)	추(菹)

II. 本 論

1. 연구방법

1) 『東醫壽世保元·甲午本』, 『新定太陽人病應用設方藥二方』, 五加皮壯脊湯 五加皮 四錢 木瓜 青松節 各二錢 葡萄根 蘆根 櫻桃肉 各一錢 蕎麥米 半匙 青松節 關材則 以好松葉代之 此方治表證 獼猴藤植腸湯 獼猴桃 四錢 木瓜 葡萄根 各二錢 蘆根 櫻桃肉 五加皮 松花 各一錢 枰頭糖 半匙 獼猴桃 關材則 以藤代之 此方治裏證
2) 李昌福, 『大韓植物圖鑑』, 東亞出版社, 서울, 1979

- 1) 本草書, 醫書, 類書 및 논문에서 蘆根과 茅根의 효능 및 특징을 조사한다.
- 2) 四象體質醫學 서적인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甲午本 草本卷, 『東武遺稿』, 『四象金匱秘方』, 교과서인 『四象醫學』 등에서 蘆根과 茅根에 대한 체질배속의 근거를 찾는다.
- 3) 앞서 찾은 근거들을 『東醫壽世保元』의 體質病證藥理와 연관시켜 본다.
- 4) 蘆根과 茅根에 대하여 체질배속의 근거를 대고, 비교분석 및 고찰한다.

2. 蘆根과 茅根의 기원 및 분류

1) 蘆根(갈대뿌리)

갈대는 유사한 형태의 식물이 많고, 갈대의 성장 과정에 따라 모습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식물이면 서로 여러 이름이 붙여있다. 그 이름들을 보면 노(蘆) 위(葦) 가(莖) 담(莢) 완(藪) 추(菹) 혜(蕙) 화(華) 등의 십여 종이 있어³⁾ 그 중 물억새와 갈대의 생김새가 비슷하여 많은 혼동이 있어왔다. 중국 쑤나라 시대의 郭璞은 “물억새[蘆]는 갈대[葦]와 같이 한 종류이다.”라고 하였고, 『爾雅』에서는 “담(莢, 물억새), 완(藪, 물억새), 위(葦, 갈대), 노(蘆, 갈대)는 대개 한 종류이다.”⁴⁾라고 하였다. 물억새와 갈대는 비슷한 생김새 때문에 같은 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혼용의 소지가 있었다. 『詩疏』에서는 이를 정리하여 “물억새[荻]와 갈대[蘆]는 여러 이름이 있으나 나누어보면 두 가지이다. 처음 난 것을 담(莢)이라 하고 자란 것을 완(藪)이라 하고 다 자라면 추(菹)라고 하며, 처음 난 것을 가(莖)라 하고 자란 것을 노(蘆)라 하며 다 자라면 위(葦)라고 하는 까닭에 선유(先儒)들께서 蘆를 菹라고 해석하고 莖를 葦라고 해석하였다.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해석한 것을 상세히 하니 葦 蘆 藪를 대개 갈대[蘆]라 한 즉 荻 蘆 菹 이것들은 물억새[荻]이라고 할 뿐이다.”⁵⁾라고 하였다.

3) 陳夢雷 編, 『古今圖書集成』, 『禮部』, 藥中有蘆 蘆根及葦子 葦葉者 蘆葦之類 凡有十數種多 蘆葦莖荻藪 蘆蕙華之類 皆是也 名字錯亂 人莫能分 或疑蘆葦而小 則蘆非葦也 今人云 莖一名葦 郭璞云 蘆似葦 是一物 按爾雅云 荻蘆葦蘆葦一物也 名字雖多會之 則是兩種耳 今世俗只有蘆與葦兩名
4) 陳夢雷 編, 『古今圖書集成』, 『禮部』, 郭璞云 蘆似葦 是一物 按爾雅云 荻蘆葦蘆葦一物也

『本草綱目』에서는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다. ‘노(蘆)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길이가 한 치 정도이며 가운데가 비어있고 껍질이 얇고 색이 흰 것은 葭 蘆 葦이다. 葦보다 짧고 작으며 가운데가 비어있고 껍질이 두꺼우며 색이 푸르스름한 것은 蒹 蘆 荻이다. 가장 짧고 작으며 가운데가 차있는 것은 蘆 葦이다.’⁶⁾라고 형태에 따른 분류를 하였다.

갈대는 물가에 서식하지만 물억새 또한 물가에 서식하기 때문에 서식지로 구분하지 못 한다. 갈대와 물억새의 차이점은 꽃의 모양인데, 물억새의 꽃은 희고 가지런하게 되어있는 반면에 갈대의 꽃은 누런색이며 거친 모습을 하고 있다는 특징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2) 茅根(띠 뿌리)

李時珍은 “白茅는 잎이 蒼(矛)의 모습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며, 그 뿌리를 끌어올리면 연결되어 즐지어 나오기 때문에 茹라고 부르기도 한다.”⁷⁾라고 하였다. 또한 蘇頌은 “봄에 싹이 돋을 때 땅에 침이 뻣뻣하게 꽃혀있는 것 같다고 하여 茅針이라 부르기도 한다.”⁸⁾라고 하여 白茅의 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本草綱目』에서는 “이러한 띠풀에는 백모(白茅), 관모(菅茅), 황모(黃茅), 향모(香茅), 파모(芭茅) 등이 있어 그 잎의 모양이 서로 비슷하다. 白茅는 짧고 작으며 3, 4월에 이삭모양의 흰 꽃을 피우고 작은 열매를 맺는다. 그 뿌리는 매우 길고 희며 筋처럼 연하고 마디가 있다. 『神農本草經』에서 사용하는 茅根이 이것이다. 菅茅는 산에서만 자라고 白茅와 비슷하나 더 길다. (중략) 맛이 달아 또한 약으로 쓰이나 효능은 白茅에 미치지 못한다. 黃茅는 菅

茅와 비슷하며 (중략) 香茅는 청모(菁茅), 경모(璚茅)라고 하였는데 호남(湖南) 장강(長江)과 회하(淮河)사이에서 난다. (하략)”⁹⁾라며 白茅에 대한 분류를 해 놓고 있다.

3. 蘆根에 대한 四象醫學의 考察

蘆根을 太陽人藥物로 사용하는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蘆根은 肝血을 수렴, 조화시키는 효능이 있다.

東武公의 治驗例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평소 코피를 자주 쏟는 15, 6세 처녀가 있었다. 아무리 보아도 체질을 알 수가 없어 처녀를 데리고 5리 정도 되는 길을 같이 걸었다. 그러면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걸음걸이와 행동을 유심히 살핀 東武公은 처녀의 걷는 모습이 하체가 약해 보이는 듯하며 다리를 자주 저는 듯한 모습과 행동을 보고 太陽人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고는 치료법으로 “다음에 코피가 나오거든 갈대뿌리(蘆根)를 달여 먹으라.”고 일러 보내면서 “시집을 가더라도 자식이 귀할 것이니 너무 섬섬하게 생각하지 말거라.”라고 알려주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후일 그 처녀가 늙어서 노파가 되었을 때 東武公의 제자들에게 직접 전한 말인데, 그녀는 東武公의 말대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고 한다.¹⁰⁾

太陽人은 急迫之心을 안정시켜야 肝血이 수렴, 조화되는데,¹¹⁾ 위의 환자는 急迫之心을 안정시키지 못하여 안정되지 못한 肝血이 자꾸 솟구쳐서 衄血을

- 5) 陳夢雷 編, 『古今圖書集成』, 「蘆部」, 按詩疏 亦將葭 莢等衆名 判爲二物 曰此艸初生爲葭 長大爲蘆 成則名爲葦 初生名葭 長大爲蘆 成則名爲葦 故先儒 釋蘆爲葦 釋葦爲葦 予今詳諸家所釋葭蘆葦 皆蘆也 則葭蘆葦 是葦耳
- 6) 李時珍, 『本草綱目』, 「蘆」, 時珍曰 蘆有數種 其長丈許 中空 皮薄色白者 葭也 蘆也 葦也 短小於葦 而中空 皮厚色青蒼者 葭也 蘆也 荻也 苕也 其最 shortest 而中實者 葦也 蘆也
- 7) 李時珍, 『本草綱目』, 「白茅」, 時珍曰 茅莠如矛故 謂之茅 其根牽連 故謂之茹
- 8) 李時珍, 『本草綱目』, 「白茅」, 頌曰 處處有之 春生芽 布地如針 俗謂之茅針

- 9) 李時珍, 『本草綱目』, 「白茅」, 時珍曰 茅有 白茅 菅茅 黃茅 香茅 芭茅 數種 葉皆相似 時珍曰 茅有 白茅 菅茅 黃茅 香茅 芭茅 數種 葉皆相似 白茅短小 三四月 開白花成穗 結細實 其根甚長 白軟如筋而有節 本經所用茅根是也 菅茅 只生山上 似白茅而長 入秋抽 莖開花 成穗如荻花 結實尖黑長分許 粘衣刺人 其根 短硬如細竹 根無節而微廿 亦可入藥 功不及白茅 黃茅 似菅茅而莖上開葉 莖下有白粉 根頭有黃毛 根亦 短而細硬無節 秋深開花穗如菅 可爲索綯 古名黃菅 香茅 一名苦茅 一名橘茅 生湖南及江淮間 葉有三脊 其氣香芬 可以包藉及縉酒 芭茅 叢生 葉大如蒲 長六 七尺 有二種卽芭也

- 10) 金宗덕 외, 『이제마평전』, 한국방송출판(주), 서울, 2002:273-275

-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四象醫學』, 집문당, 서울, 2004:308

- 11) 『東醫壽世保元·辛丑本』, 「四象人辨證論」, 少陰人 恒有不安定之心 不安定之心寧靜則 脾氣 卽活也 太陽人 恒有急迫之心 急迫之心寧靜則 肝血 卽和 也

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東武公이 이러한 증상에 蘆根을 처방한 것은 蘆根에 太陽人의 솟구친 기운을 수렴시켜 衄血을 멎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갈대의 줄기와 잎을 복용하여 吐血이 멎지 않는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¹²⁾ 이는 衄血을 멎추는 蘆根의 효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갈대 자체의 수렴, 하강기운으로 해석해볼 수 있겠다.

둘째, 蘆根은 수렴기운으로 太陽人 噎膈反胃를 치료한다.

蘆根은 『東醫壽世保元 草本卷』에는 보이지 않으나 『甲午本』에 수록되어 太陽人의 表裏病에 모두 사용되고 있다. 특히 蘆根에 대해서는 “다른 구역질로 목이 메는 것과 五噎, 가슴이 답답한 증세를 낮게 해준다.”¹³⁾라며 太陽人에게 약재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蘆根의 효능은 『東醫寶鑑』(1613年)¹⁴⁾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 내용이 동일하다. 『草本卷』에는 노근이 사용되지 않다가 『甲午本』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노근의 효능이 『東醫寶鑑』과 같다는 것은 『草本卷』과 『甲午本』 사이에 부족한 太陽人處方과 藥物을 보완하려는 노력의 소산으로 보인다.

『本草綱目』(1596年)에서는 “蘆根은 소갈(消渴)과 외사(外邪)로 인한 열을 치료하고 소변이 새는 것을 막아준다. 反胃 증상으로 구역질나는 것과 음식이 내려가지 않는 것, 위의 열과 傷寒病으로 내부에 열이 나는 것에 두루두루 좋다. 심한 열을 풀어주고 위를 통하게 해주며 목 메이는 것이 그치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寒熱往來하는 유행성 질병과 답답하고 설사하며 목이 많이 마른 것과 임신부의 心熱을 낮게 해준다.”¹⁵⁾라고 한다. 또한 가슴과 격막에 기가 체하여 답답하면서 음식이 내려가지 않아 생긴 五噎로 인한

嘔逆에 蘆根을 사용하였으며,¹⁶⁾ 反胃로 기운이 올라오는 것에는 蘆根과 茅根을 함께 사용하기도 하였다.¹⁷⁾ 이와 같은 내용은 『普濟方』(150)에도 수록되어 있다.¹⁸⁾

『東醫壽世保元』 太陽人 裏病부분을 보면 각 의가의 말을 인용하여 噎膈反胃의 증상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그리고 그 뒤에 덧붙여 말하길 ‘이 증상은 太陽人 小腸病의 크게 중한 증상이다. 반드시 성내고 화내는 것을 멀리하고 膏粱厚味를 끊은 후에야 그 병이 나올 수 있으니 이런 증상에는 獼猴藤植腸湯이니라.’¹⁹⁾라고 하였다. 朱震亨은 ‘大便이 꾸의 것과 같은 사람은 치료가 어려우며, 음식을 담백하게 먹지 않는 사람도 치료가 어렵다.’²⁰⁾라고 하였다.

東武公은 太陽人의 噎膈反胃증상이 小腸의 吸聚之氣가 부족하여 발생한다고 하였다.²¹⁾ 四象醫學에서의 小腸은 협착되고 굴곡되어 위에서 내려온 水穀이 消導되는 부위로서 平淡한 성질을 지닌 涼氣를 만드는 곳이다.²²⁾ 그런데 太陽人의 小腸은 肝黨의 하나로 偏小之臟의 그룹에 속한다. 즉, 그 기운이나 기능이 약한 상태이다. 水穀之氣를 잘 消導하여 平淡한 성질을 가진 涼氣를 생산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체질의 사람이 膏粱厚味를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 『東醫壽世保元 草本卷』에 의하면 太陽人에게 食脹이 생

12) 李時珍, 『本草綱目』, 「蘆」, 吐血不止 蘆根外皮 燒灰勿令白 爲末 入蚌粉少許 研勻 麥門冬湯 服 二錢 三服 可救一人 聖惠方
13) 『東醫壽世保元·辛丑本』, 「太陽人內觸小腸病論」, 蘆根 治乾嘔噎 及五噎 煩悶 蘆根 五兩 水煎頓服 一升 不過三升即差
14) 『東醫寶鑑』, 「嘔吐門」, 蘆根 治乾嘔噎 及五噎 煩悶 蘆根 五兩 水煎頓服 一升 不過三升即差
15) 李時珍, 『本草綱目』, 「蘆」, 消渴客熱 止小便利 別錄 療反胃嘔逆 不下食 胃中熱 傷寒內熱 獼良 蘇恭 解大熱 開胃 治噎噎不止 甄權 寒熱時疾 煩悶 瀉痢大渴 孕婦心熱 大明

16) 李時珍, 『本草綱目』, 「蘆」, 五噎吐逆 心膈氣滯 煩悶 不下食 蘆根五兩 剉 以水三大盞 煮取二盞 去滓 溫服 金匱玉函方
17) 李時珍, 『本草綱目』, 「蘆」, 反胃上氣 蘆根茅根各二兩 水四升 煮二升 分服 千金方
18) 朱 橧, 『普濟方 卷三十五』, 「胃膈門」, 治胃反食即吐出上氣 蘆根茅根 各二兩 右以水四升 煮 取二升 頓服之 得下良
19) 『東醫壽世保元·辛丑本』, 「太陽人內觸小腸病論」, 論曰 此證 即太陽人小腸病 太重證也 必遠噎怒 斷厚味然後 其病可愈 此證 當用獼猴藤植腸湯
20) 『東醫壽世保元·辛丑本』, 「太陽人內觸小腸病論」, 大便 如羊矢者 難治 不淡飲食者 難治
21) 『東醫壽世保元·辛丑本』, 「太陽人內觸小腸病論」, 太陽人小腸吸氣液陰涼之氣 不足則胃脘呼氣液陽溫之氣 必盛也 胃脘陽溫之氣 太盛則胃脘血液 乾枯 其勢固然也 然 非但乾枯而然也 上呼之氣 太過而中吸之氣 太不支故 食物 不吸入而還呼出也
22) 『東醫壽世保元·辛丑本』, 「臟腑論」, 小腸之體 狹窄而屈曲故 水穀之氣 消導也 李濟馬, 『東醫壽世保元·辛丑本』, 「臟腑論」, 水穀都數 停於胃而薰蒸爲熱氣 消導於小腸而平淡爲涼氣

Table 2. 歷代文獻上 治噎膈反胃嘔吐에 蘆根의 適用事例

명칭	年	내용
備急千金要方	652	治傷寒後 嘔噦反胃及乾嘔不下食
證類本草	1097	治噎噦不止
湯液本草	1289	治五噎 膈氣煩悶 吐逆不下
普濟方	15세기(明代)	治胃反食即吐上氣 蘆根
救急簡易方言解	1489	噎塞 목머유미라/ 蘆根汁 3분씩 服之 3분뒤 물 3분씩 따머그라
本草蒙筌	1565	止嘔噦 開胃 下食
本草綱目	1596	療反胃嘔逆 不下食
東醫寶鑑	1613	治乾嘔噦 及五噎
神農本草經疏	1625	蘆根汁 治血液衰少 漸成噎膈
本草從新	1751	治嘔穢反胃, 反胃嘔吐
附方便覽	1855	止反胃五噎吐逆去膈間客熱
本草備要	미상(清代)	治嘔噦反胃
東醫壽世保元	1901	治乾嘔噎 及五噎
四象金匱秘方	1936	吐清水 與食入即出 太陽人 木瓜 蘆根 各五錢 煎服

기거나, 몸이 붓고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았다.²³⁾ 이는 氣液之氣가 混濁해지는 모습으로 太陽人의 偏小之臟인 小腸의 消導기능이 잘 발휘되기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太陽人은 意가 강하고 操가 약하며, 위로 뽑는 기운은 넘치는 반면에 小腸의 吸聚기능이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분의 흡수 부족으로 장이 굻주리게 되며, 결국 그 병이 噎膈反胃가 된다는 것이다.²⁴⁾

『東醫壽世保元』에는 ‘太陽人 小腸의 氣液陰涼之氣 흡수가 부족해지면 胃脘의 氣液陽溫之氣를 뽑어내는 것이 반드시 왕성하게 된다. 胃脘의 陽溫之氣가 크게 왕성해지면 胃脘의 血과 液이 마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²⁵⁾라고 하였다. 이는 朱丹溪의 이론인 ‘噎膈反胃가 血과 液이 모두 감소하여 생긴다.’는 내용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²⁶⁾ 여기에 더하여 『神農本草經疏』(1625年)에는 ‘蘆根은 혈액이 쇠하고 줄어들어 생기는 噎膈을 치료한다.’²⁷⁾라는 내용이 있다. 이와 같이 噎膈反胃의 증세는 血과 液의 감소와 연관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이 생각은 『東醫壽世保元』의 시각과 유사하다. 다만 그 근본적인 원인을 太陽人 吸聚之氣의 부족과 氣液之氣의 혼탁으로 보는 관점이 없었던 것뿐이며, 東武公에 의하여 ‘蘆根은 太陽人의 噎膈反胃를 치료한다.’는 것으로 정리된 것이다.

이렇듯 蘆根이 噎膈反胃를 치료한다는 내용의 歷代醫書を 정리한 것은 (Table 2)에 나와 있다.

셋째, 역수노근(逆水蘆根)은 吸聚之氣를 갈대의 주요 효능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된다.

본초서적들에서는 『證類本草』 등의 의서에서와 같이 ‘수곡을 소화시킬 때 역수노근(逆水蘆根)과 아울러 厚朴을 끓여서 먹으면 즉시 효과를 본다.’²⁸⁾라

23) 『東醫壽世保元·草本卷』, 「病變 五統」, 少陽之面腫 少陰之眩暈 太陽之食脹 太陰之昏倦 眞是重症 終非輕證
李濟馬, 『東醫壽世保元·草本卷』, 「病變 五統」, 精神陷短 少陰之凶證 語靜微弱 太陰之凶證 肉脫鮮食 少陽之凶證 肉浮多食 太陽之凶證
24) 『東醫壽世保元·辛丑本』, 「太陽人內觸小腸病論」, 太陽人 意強而操弱 意強則胃脘之氣 上達而呼散者 太過而越也 操弱則小腸之氣 中執而吸聚者 不支而餒也 所以其病 爲噎膈反胃也
25) 『東醫壽世保元·辛丑本』, 「太陽人內觸小腸病論」, 太陽人小腸吸氣液陰涼之氣 不足則胃脘呼氣液陽溫之氣 必盛也 胃脘陽溫之氣 太盛則胃脘血液 乾枯 其勢固然也

26) 『東醫壽世保元·辛丑本』, 「太陽人內觸小腸病論」, 朱震亨曰 噎膈反胃之病 血液俱耗 胃脘 乾枯 其枯在上 近咽則 水飲可行 食物難入 人亦不多 名之曰噎 其枯在下 近胃則 食難可入 難盡入胃 良久復出名之曰膈 亦曰反胃
27) 繆希雍 撰, 『神農本草經疏』, 「梨」, 梨汁 同霞天膏 竹瀝童便 治中風痰熱 同人乳蔗漿蘆根汁童便竹瀝 治血液衰少 漸成噎膈
28) 『東醫寶鑑』, 「厚朴」, 消化水穀 取逆水蘆根 并厚朴 煎服 即效
『證類本草』, 須煎蘆朴 不食者 并飲酒少者 煎逆水蘆根 并厚朴 二味湯服

고 하였다. 하지만 역수노근(逆水蘆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쾌한 해석이 되어있지 않았다. 대개의 경우 ‘蘆根의 뿌리가 물을 거슬러 자라는 것.’을 逆水蘆根이라고 하고 있지만, 의미가 불명확하다. 그런 역수(逆水)의 정의부터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수(逆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볼 수 있다.

① 거꾸로 흐르는 물이라는 의미 ②물의 흐름에 거스르는 것 ③빨리 흐르지 않고 천천히 흐르는 물이라는 뜻 등이 있다.

우선 거꾸로 흐르는 물의 경우 자연현상에서는 흔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하류에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물은 거의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물은 대개 동서의 표고차이 때문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게 되는데, 특징적으로 청계천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대입하여 몇 안 되는 江河川에서 자라는 蘆根이 좋다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다.

갈대뿌리(蘆根)가 물을 거슬러 자라는 것을 역수노근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노근을 찾는 것 또한 수월하지 않을뿐더러 갈대뿌리는 땅속에서 가로로 길게 자라기 때문에 일반 식물의 뿌리처럼 자라는 방향이 있다고 보기엔 더더욱 어렵다.

역수(逆水)를 천천히 흐르는 물이라고 해석하면 갈대의 서식지와 연결이 가능하다. 갈대는 습지, 갯벌에 주로 서식하며 강 하구의 유속이 느린 곳과 강변의 수심이 깊지 않고 물이 천천히 흐르는 곳에서 주로 발견된다. 물이 빨리 흐르지 않고 천천히 흐르면, 영양물질 등이 침전되기 쉬운 환경이 된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갈대는 충분히 영양을 공급받게 되며, 생장에 유리한 상태가 된다. 갈대가 습지, 갯벌, 강 하구의 유속이 느려지는 곳에서 집단군락을 이루는 것으로 보아 빠른 유속은 갈대에게는 불리한 환경조건이 될 수 있다. 갈대는 침전물이 쌓이지 않는 곳에서는 생존에 불리하게 되며, 영양물질이 많이 쌓이는 곳에서 물을 정화하며, 그 과정에서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갈대는 생육기간 동안에 상당한 양의 질소(N), 인(P) 및 오염물질 등을 흡수한다고 밝혀져 있다.²⁹⁾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 蘆根을 사용할 때는 물 밖으로 노출

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다.³⁰⁾ 이것은 불속의 蘆根이 끊임없이 물을 여과하여 맑게 하는 작용을 하기에 약재로 쓰이기 적합하며, 물위로 나온 蘆根은 흡착여과의 효능이 적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鄉藥集成方』 등에 나온 역수로(逆水蘆)는 뿌리가 물의 흐름을 거슬러 자라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흐르는 물에서 살며 색이 누렇게 살찐 갈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³¹⁾

위의 내용으로 보아 역수노근(逆水蘆根)은 유속이 느린 곳에서 영양분을 흡수하여 살찐 갈대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는 갈대의 흡력(吸力)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四象金匱秘方』에 나타나는 蘆根과 茅根

『四象金匱秘方』(이하 『金匱秘方』)은 1936년에 저술된 사상의학에 관한 구체적인 經驗方을 정리한 책으로 각 체질별 단방약물과 食物類만을 적어놓은 책으로는 최초의 책이다.³²⁾ 그리하여 蘆根과 茅根의 單方 사용에 대한 근거 및 체질배속을 찾기 위하여 『金匱秘方』을 조사하여 보았다.

蘆根의 효능을 크게 나누어 보면 癘亂 食傷(食中毒 포함) 嘔吐의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들 각각의 효능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는 것은 東武公 사후의 經驗方이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아 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癘亂으로 煩燥하며 吐瀉증세가 있고 사지가 차가워지면서 끝내 죽으려고 하는 증상에 『四象金匱秘方』에서는 蘆根을 술과 함께 달여 먹으라고 하였다.³³⁾ 이것을 『本草從新』에서는 열로 인한 癘亂과 嘔吐증에 蘆根을 사용하며,³⁴⁾ 『東武遺稿』에서는

29) 노희명 · 최우정 · 이은주 · 윤석인 · 최영대. 「사회지구 인공습지에서 갈대에 의한 질소 및 인 흡수」, 한국생태학회지. 2002;25(3):219-224

30) 『東醫寶鑑』, 「湯液序例」, 凡使須要逆水蘆 其根逆水生者 又云當採取水底 甘身者 其露出浮水者不堪用

31) 權採, 俞孝通, 盧重禮, 朴允德, 『鄉藥集成方』, 「草部」, 蘆根 凡使須要逆水蘆 其根逆水生 并黃泡肥厚味甘者 採得後 去節鬚并上亦黃了細剉用

32) 유준상 · 신우용. 『金匱秘方』에 대한 문헌적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2005;17(2):27-31

33) 李民鳳, 『四象金匱秘方』, 「癘亂」, 轉筋腹 煩燥吐瀉 四肢厥冷 垂死者 太陽人 蘆根 酒煎服

Table 3. 『金匱秘方』에서 蘆根이 사용된 내용

항목	증상	처방내용
곽란(霍亂)	轉筋腹 煩燥吐瀉 四肢厥冷 垂死者	蘆根 酒煎服
상식(傷食)		太陽人 杵頭糠 蘆根 各三錢 煎服
우마육 중독 (牛馬肉 中毒)		蘆根一兩 煎服
개고기 중독		狗肉毒 蘆根 煎服
구토(嘔吐)	吐清水 與食入即出	太陽人 木瓜 蘆根 各五錢 煎服

蘆根이 瘧亂을 멈추게 해준다는 내용이 있다.³⁵⁾ 食傷증상에는 『御纂醫宗金鑑』에 ‘蘆根을 끊어 즙을 내어 마시면 좋다. 처방을 해설하자면 蘆根의味が 달고 성질이 차서 여러 고기로 인한 독을 풀어준다는 것이다.’³⁶⁾라고 하였고, 『赤水元珠』에서는 ‘개고기를 먹고 소화가 되지 않은 병에 가슴 아래가 단단하고 혹은 腹脹과 입이 건조해지며 열이 나면서 헛소리하는 증상이 있으면 물로 끓인 蘆根汁을 마셔라.’³⁷⁾라는 처방이 있다.

嘔吐증상은 太陽人에게 木瓜 蘆根 각 5돈씩 끊어 먹으라고 되어 있다.³⁸⁾ 木瓜 蘆根은 太陽人 表證·裏證 처방에 모두 들어가는 약물이다. 『備急千金要方』에는 傷寒의 병이 있는 후에 嘔吐, 反胃, 헛구역질, 음식이 내려가지 않는 증상 등에 蘆根을 사용한 처방이 있다.³⁹⁾

瘧亂 食傷(食中毒 포함) 嘔吐 등의 증상은 소화기관의 이상으로 대부분 嘔吐를 동반하게 된다. 이러한 증상에 蘆根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蘆根의 수렴작용을 통한 鎮吐, 解毒 및 소화기관 안정작용을 이용

한 것으로 보인다.

『金匱秘方』에서는 茅根에 대하여 『東醫壽世保元 草本卷』에서의 마찬가지로 太陰人 藥物로 배속하고 있다.⁴⁰⁾ 하지만 『草本卷』에서 太陽人 藥物로 나왔던 白芍藥에 대하여는⁴¹⁾ 少陰人 藥物로 기재하고 있어⁴²⁾ 『甲午本』, 『辛丑本』을 참고한 것으로 생각된다.

5. 茅根의 四象體質 藥物配屬에 대한 고찰

『東武遺稿』에는 『濟衆新編』(1799年)에서 인용하여 ‘茅根은 맛이 달아 소변이 막힌 것을 통하게 하고 瘀血을 몰아내며 吐血과 衄血을 멈추게 하고, 客熱을 제거한다.’⁴³⁾라는 효능으로 나와 있다. 『本草綱目』에는 茅根의 효능으로 ‘과로로 몸이 상하여 허약한 것을 낮게 하고, 補中益氣의 효능이 있다. 어혈과 혈이 막힌 것을 제거하며, 추웠다 더웠다하는 증세를 치료하며 소변이 잘 나오게 한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하며 客熱이 腸胃에 있는 것을 제거한다. 갈증을 멈추고 근육을 단단하게 하며 부인의 崩漏를 치료한다. 오래 복용하면 사람에게 이롭다.

34) 吳儀洛, 『本草從新』, 「蘆根」, 因熱霍亂煩悶 蘆根三錢麥門冬二錢 水煎服 即愈
 35) 『東武遺稿』, 「肝藥」, 蘆根 甘寒消胃熱時行熱疫大煩渴止霍亂 及小便秘孕婦心煩更可治
 36) 吳謙, 『御纂醫宗金鑑』, 「治馬肉中毒欲死方」, 又方煮蘆根汁 飲之 良 方解 蘆根味甘性寒 解諸肉毒
 37) 孫一奎 撰, 『赤水元珠』, 「內傷門」, 傷狗肉不消 心下堅硬 或腹脹口乾 發熱妄語 水煮蘆根汁 飲之
 38) 李民鳳, 『四象金匱秘方』, 「嘔吐」, 吐清水 與食入即出 太陽人 木瓜 蘆根 各五錢 煎服
 39)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蘆根飲子 治傷寒後 嘔噦反胃及乾嘔不下食方 生蘆根 切 青竹茹 各一升 粳米 三合 生薑 三兩 右四味以水七升 先煮千里鞋底二隻 取五升澄清 下藥煮取二升半 隨便飲 不瘳重作取瘳

40) 李民鳳, 『四象金匱秘方』, 「衄血」, 眩冒欲死 晝夜不止 或大病後衄血 太陰人 百草霜五錢 爲末 茅根煎湯下 或爲末吹鼻中
 41) 『東醫壽世保元·草本卷』, 「藥方 四統」, 獼猴桃湯 治太陽人裏證 獼猴桃 葡萄各三錢 木果二錢 白芍藥 生甘草各一錢
 李濟馬, 『東醫壽世保元·草本卷』, 「藥方 四統」, 白芍藥自是肝藥 而妙用則入於脾藥
 42) 李民鳳, 『四象金匱秘方』, 「消渴」, 引飲或口中乾燥 少陰人 白芍藥甘草 各五錢 煎服 日三回
 43) 『東武遺稿』, 「肝藥」, 茅根味甘 通關逐瘀 止吐衄血 客熱可去 白茅根也 可辟穀 康命古, 『濟衆新編』, 「藥性歌」, 茅根喫呷리味甘 通關逐瘀 止吐衄血 客熱可去

부인의 월경이 균일하지 않은 것을 치료하며 혈맥과 소변을 통하게 한다.吐血과 衄血을 멈추게 하며 傷寒으로 인한 딸꾹질, 폐열로 인한 喘急을 치료한다. 몸이 붓고 황달이 있는 것을 낮게 하며 주독을 풀어준다.⁴⁴⁾라고 나와 있다. 또한 反胃증세로 기가 솟구쳐 음식을 먹자마자 토하는 것과 衄血,吐血이 멈추지 않는 것에도 茅根을 사용하였다.⁴⁵⁾

『東醫壽世保元 草本卷』에서는 太陰人의 토혈을 치료하는 清心側柏葉湯에 白茅根이 들어있다.⁴⁶⁾ 이것으로 보아 白茅根은 太陰人藥物로 배속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東醫壽世保元 甲午本』과 『辛丑本』에서는 白茅根이라는 약물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東武公의 처방구성이 草本卷 이후로 많이 개편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東武遺稿』에서 白茅根이 太陽人藥[肝藥]으로 배속되어 있다는 점이다.

茅根의 체질배속이 바뀐 것을 어떻게 생각하여야 좋을 것인가. 白茅根뿐 아니라 白芍藥, 黃芪 등의 여러 약물도 체질배속이 바뀌었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東武公의 임상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잘못된 배속을 바로잡았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東武遺稿』 四象藥性歌에서는 체질배속이 잘못되어있는 경우 내용 끝에 ‘○○人’이라고 되어있다.⁴⁷⁾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東武公이 쓴 것이거나, 아니면 東武公 사후 후인들이 교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藥性歌에서 백모근은 太陽人藥[肝藥]으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체질배속에 대한 교정 없이 ‘즉 白茅根이며 이것으로 穀食을 끊을 수 있다.’⁴⁸⁾라고만 적혀 있다. 오류가 있던 약제는 교정이 되었지만 白茅根은 그렇지 않았다. 이것으로 보아 『東武遺稿』에서 白茅根이라는 약제는 일단 太陽人藥物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茅根을 太陽人藥[肝藥]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白茅根은 기존의 의서에서 反胃를 치료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나온다. 『本草綱目』에는 ‘反胃로 기운이 솟구치며 음식을 먹으면 바로 토하는 증세에 茅根과 蘆根 각 두 냇을 물 네 되(四升)로 끓여서 두 되(二升)로 만들어 바로 복용하면 좋다.’⁴⁹⁾라고 하였다. 『醫心方』(984年)에서도 熱로 인한 구토에 茅根과 蘆根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⁵⁰⁾ 18세기 조선시대 『林園經濟志』의 『仁濟志』에도 또한 유사한 내용이 있다.⁵¹⁾ 이 때 反胃증세와 음식이 바로 토하는 것은 太陽人 噎膈反胃의 증세로 보인다. 이때 蘆根과 茅根을 같이 사용하였다는 점은 茅根에도 蘆根과 유사한 효능이나 성질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둘째, 白茅根과 蘆根을 混用 및 代用하였다. 이를 白茅根과 蘆根과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갈대는 어린 싹은 葦(葦)라고 하고, 어느 정도 자라면 노(蘆)라고 하며, 다 자란 것을 위(葦)라고 한다. 그래서 노근(蘆根)이라고 하면 다 자란 갈대의 뿌리인 위근(葦根)이 아니라, 다 자라지 않은 갈대의 뿌리를 말하는 것이다. 갈대가 다 자르면 약 3m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띠풀(白茅)하고는 확실하게 다르지만, 다 자라기 전의 갈대는 띠풀과 비슷해 보일 수 있다. 게다가 蘆花와 茅花가 비슷하기 때문에⁵²⁾ 띠와 갈대를 혼동할 소지가 있다. 노근의 異名

44) 李時珍, 『本草綱目』, 「白茅」, 勞傷虛羸 補中益氣 除瘀血血閉 寒熱利小便 本經 下五淋 除客熱在腸胃 止渴堅筋 婦人崩中 久服利人 別錄 主婦人月經不勻 通血脈淋瀝 大明 止吐衄諸血 傷寒嘔逆 肺熱喘急 水腫黃疸 解酒毒 時珍

45) 李時珍, 『本草綱目』, 「白茅」, 反胃上氣 食入即吐 茅根蘆根二兩 水四升 煮二升 頓服得下 良 聖濟總錄 鼻衄不止 茅根爲末米泔水服二錢 聖惠方 吐血不止 千金翼用白茅根一握水煎服之婦人良方用根洗搗汁日飲一合

46) 『東醫壽世保元 草本卷』, 「藥方 四統」, 清心側柏葉湯 治吐血 天門冬 側柏葉 各三錢 蓮子肉 生藕節 白茅根 各一錢

47) 『東武遺稿』,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 稷米甘寒 益氣調中 壓丹石毒 多食發冷 少陽人, 粟米鹹寒 益氣養腎 去胃中熱 能利小便 少陽人, 金啓蠟瘡疾用 又少陽人藥, 石油辛毒兒驚風 塗疥癬癩及殺蟲 太陰人, 黑桑椹 安精定志 太陰人, 鷄內金 寒瀉遺精 洩瘰癧漏崩 更除煩熱 少陰人

48) 『東武遺稿』, 「肝藥」, 茅根味甘 通關逐瘀 止吐衄血 客熱可去 白茅根也 可辟殺

49) 李時珍, 『本草綱目』, 「白茅」, 反胃上氣 食入即吐 茅根蘆根二兩 水四升 煮二升 頓服得下 良 聖濟總錄

50) 丹波康賴, 『醫心方』, 「治熱嘔方」, 蘆根 茅根切 各一升 以水六升 煮取二升 分三服

51) 徐有架, 『仁濟志』, 「癩前諸證治法」, (王氏方)發熱吐利 宜黃芩湯 加茅根蘆根枇杷葉 火迫中焦吐利 宜黃芩湯 多加蘆根茅根

52) 朱 橐, 『救荒本草』, 「蘆笋」, 花白 作穗如茅花

중에는 蘆茅根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명칭은 동의 보감 등의 의서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羅氏會約醫鏡』(羅國綱, 1789)에서 나타난다.⁵³⁾ 이 이름은 이인재(李麟宰)의 『袖珍經驗神方』(1912)에도 나타난다.⁵⁴⁾

청말(靑末)의 장석순(張錫純, 1860-1933)도 또한 『醫學衷中參西錄』에서 '지금 약방에서 파는 것은 노근(蘆根, 덜 자란 갈대의 뿌리)이라 부르고 있지만 실은 위근(葦根, 다 자란 갈대의 뿌리)이다. 그 성질은 모근(茅根, 띠 뿌리)에 아주 가깝다. 대개 茅根을 쓸 경우에 茅根이 없을 때에는 갈대뿌리를 대신 쓸 수 있다.'⁵⁵⁾라고 하였다. 이렇듯 근세기에 들어와서도 蘆根과 茅根을 대응하는 것은 두 약재의 성질과 효능이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茅根은 『東醫壽世保元 草本卷』, 『金匱秘方』에서는 太陰人藥物로 나온다. 『本草綱目』에서는 '白茅根은 어혈과 혈이 막힌 것을 제거하며, 혈맥과 소변을 통하게 한다. 吐血과 衄血을 멈추게 하며 폐열로 인한喘急을 치료한다.'라고 하는데, 이렇듯 혈맥을 통하게 하고 막힌 것을 뚫는 효능은 막힌 것을 통외(通外)시키는 작용으로 보인다. 또한 吐血과 衄血을 멈추게 한다는 것은 太陰人의 吐血, 衄血을 멎게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茅根이 太陽人藥物에 배속되는 것과 太陰人藥物에 배속되는 것에는 각각의 근거들이 있어서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茅根이 太陽人藥物이 될 수 있는 근거로는 茅根의 反胃를 치료하는 효능, 갈대와 代用되었다는 유사성으로 미루어 짐작될 뿐이다. 太陰人藥物로 볼 수 있는 근거는 草本卷, 『金匱秘方』에서 사용되었다는 것과 瘀血을 풀고 血脈을 통하게 한다는 것인데, 그 또한 太陰人藥物에 배속되는 근거로 명백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지금까지의 연구로는 茅根이 어떠한 체질에 배속되는지 명확하지는 않기에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茅根을 反胃, 衄血, 吐血증세에 單方으로 사용한 것과 茅根과 蘆根이 유사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 代用되었다는 점 등의 관련 문헌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茅根을 太陽人藥物에 배속시키는 것이 적절하게 보인다.

Ⅲ. 結 論

1. 蘆根은 肝血을 수렴, 조화시키는 효능이 있고, 수렴기운으로 太陽人 噎膈反胃를 치료한다. 또한 역수노근(逆水蘆根)은 吸聚之氣를 갈대의 주요 효능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된다.
2. 白茅根의 通外작용은 太陰人藥物의 근거이며, 反胃를 치료하는 효능은 太陽人藥物의 근거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근거만으로 白茅根이 太陽人藥物이나 太陰人藥物에 배속된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茅根을 反胃, 衄血, 吐血증세에 單方으로 사용한 것과 茅根과 蘆根이 유사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 代用되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茅根을 太陽人藥物에 배속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3. 각 체질별 단방약물과 食物類만을 적어놓은 책으로는 최초의 책인 『四象金匱秘方』에서는 기존의 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蘆根과 茅根에 대한 사용례를 적어놓았다.
4. 白茅根은 『東武遺稿』에는 太陽人藥[肝藥]으로 나오나 『東醫壽世保元』 草本卷과 『四象金匱秘方』에는 太陰人藥物로 나와 논쟁의 소지가 있다.

Ⅳ. 參考文獻

- 53) 羅國綱, 『羅氏會約醫鏡』, 「蘆茅根」, 味甘寒 無毒入脾經 甘益胃 寒除火 治噎膈反胃消渴嘔逆 皆胃熱之患 傷寒內熱 止小便頻數 亦有屬熱者 按性寒以上諸証屬 寒者 切勿誤用 根取土之中者 若露出水面者損人
- 54) 李麟宰, 『袖珍經驗神方』, 「諸肝毒」, 又蘆茅根 煎湯飲之效
- 55)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葦莖 蘆根」, 今藥局所鬻者 名爲蘆根 實卽葦根也 其性頗近茅根 凡常用茅根 而無鮮者 皆可以鮮蘆根 代之也

1. 李濟馬著. 韓斗正 편집. 東醫壽世保元. 7版, 1941.
2.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復元本. 四象體質醫學會. 2001.
3. 李濟馬原著. 朴性植譯解. 東醫壽世保元四象

- 草本卷. 集文堂, 서울, 2003.
4. 李濟馬著. 량병무, 차광석譯. 東武遺稿. 海東出版社, 1999.
 5. 許浚. 東醫寶鑑. 南山堂, 서울, 1987.
 6. 朱橚, 普濟方, 四庫全書.
 7. 繆希雍 撰, 神農本草經疏, 四庫全書
 8. 朱橚, 救荒本草, 四庫全書.
 9.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四庫全書.
 10. 孫一奎 撰, 赤水元珠, 四庫全書.
 11. 吳謙, 御纂醫宗金鑑, 四庫全書.
 12. 吳儀洛, 本草從新, 杏林書院.
 13. 李民鳳, 四象金匱秘方,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 서비스.
 14. 李麟宰, 袖珍經驗神方,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 서비스.
 15. 丹波康賴, 醫心方,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
 16. 徐有架, 仁濟志,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
 17. 羅國綱. 羅氏會約醫鏡.
 18.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19. 李時珍. 本草綱目. 中國醫學大系 40-42卷. 여강출판사, 서울, 1988.
 20. 陳夢雷 編. 古今圖書集成. 草木典. 鼎文書局, 1977.
 21. 김종덕 외. 이체마평전. 한국방송출판(주), 서울, 2002.
 22.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四象醫學』. 집문당, 서울, 2004.
 23. 李昌福. 『大韓植物圖鑑』. 東亞出版社, 서울, 1979.
 24. 노희명 · 최우정 · 이은주 · 윤석인 · 최영대. 「시화지구 인공습지에서 갈대에 의한 질소 및 인 흡수」. 한국생태학회지. 2002;25(3):219-224.
 25. Yoo JS, Shin WY. The Bibliographical Study on the book 『Sasang Geumge Bibang』.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5;17(2):27-31 (Korean).